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향¹⁾

정 창 우(서울대학교 부교수)*

《 요 약 》

이 연구는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도덕과교육학의 개념과 학문적 정체성을 고찰하였으며, 독자적인 연구 대상, 이론 체계, 세계관, 연구방법론 등 도덕과교육학이 학문적으로 확립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학문적 독립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와 연구영역을 재설정하여 학문적 위상 제고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분과 학문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관심·개념·방법들을 공유하는 해당 학문공동체의 노력과 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도덕과교육 학문공동체에서 산출한 지적 탐구의 결과물들을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과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제어 : 도덕과교육학, 도덕교육, 국민윤리학, 학문적 정체성, 학문적 위상

I. 서론

1998년에 개최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연차발표대회의 학술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8월에 『도덕·윤리교과교육학 개론』이 출판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도덕과교육학²⁾의 학적 정립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그 나

1) 본 연구는 제84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jcwoo@snu.ac.kr

2) '도덕 교과'의 교과교육학을 지칭할 때, 지금까지 '도덕·윤리교과교육학'(정세구, 1998), '도덕과 교과

림의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는 데에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집적된 도덕(과)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 성과물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도덕과교육학의 학적 정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은 크게 보면 내생적(endogenous) 요인과 외생적(exogenous)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생적 요인으로는 첫째, 도덕과는 어떤 전통적인 학문의 한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에서 개설된 것이며, 또 학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학문 체계와의 일치에서 찾기 보다는 개인적 필요성 및 국가·사회적 요구에서 찾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정세구, 1998, p. 5). 이와 같은 교과와 학문 간의 불연속성은 그동안 도덕과교육학의 학적 정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둘째,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로 구성된 도덕과교육 학문 공동체 내의 소통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도덕과교육학계에서 동·서양 윤리학, 정치(철)학, 북한학 및 통일교육, 교과교육 전공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의 결핍이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하나의 학문이 학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인식 대상 혹은 현상, 이론 체계, 세계관, 선호하는 연구방법론 등이 설정되어야 하는데(Szostak, 2003, p. 29), 도덕과교육학계에서 이러한 학문적 기반 구축을 위한 작업이 충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사실상 도덕과에 한정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가 현 시점에서 공유하고 있는 학문적 난관이자 도전 과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초·일반학문에 대한 응용적 성격’을 지닌 교과교육학의 근본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외생적 요인으로는 자기비판 및 성찰을 허용하지 않는 삶의 풍조와, 교육을 ‘사회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국가적 교육관이 결합되면서, 독립교과로서 도덕과의 가치가 폄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오로지 잘 살기 위한 열망으로 들끓고 있으며,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단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 쾌락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뿐 그러한 삶의 가치와 목적 그 자체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용’ 혹은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보다 앞서 나가거나, 정치권력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교육정책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의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풍조는 도덕과를 제6차 교육과정 이후 매 개정시기마다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어

교육학’(정탁준, 2010), ‘도덕과교육학’(추병완, 2004)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혼용해 왔는데, 본 연구자는 앞으로 ‘도덕과교육학’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각 교과별 교과교육학에서 ‘교과’를 나타내기 위해 교사자격기준이 되는 해당 ‘표시과목’(도덕·윤리)의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편제상 ‘도덕과’가 공식적인 교과목 명칭이기 때문에, ‘도덕과교육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왔고, 이러한 위기 국면은 도덕과가 학적 내실을 기하는데 어느 정도 자극을 주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도덕과교육학의 학적 정립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그리고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심각하게 제한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본 연구는 도덕과교육학의 학적 정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 중 내생적 요인에 주목하면서 도덕과교육학이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도덕과교육학의 개념 및 학문적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학문체계 구축을 위해 도덕과교육학의 구조와 연구영역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새로운 분과 학문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관심·개념·방법들을 공유하는 해당 학문공동체의 노력과 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도덕과교육 학문공동체에서 산출한 지적 탐구의 결과물들을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과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Ⅱ. 도덕과교육학 연구의 역사와 학문적 위상 강화의 배경

1. 도덕과교육학 연구의 역사

도덕과교육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국민윤리학’의 학적 정립을 위한 시도가 먼저 이루어졌다. ‘국민윤리’라는 개념은 김범부 선생이 1951년에 강의했던 “국민윤리특강”과 1962년에 저술한 ‘건국정치의 이념’이 수록된 『범부유고』(김범부, 1986)에서 최초로 찾아볼 수 있으며, 그의 ‘풍류정신’에서 이러한 국민윤리에 대한 기본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윤리는 어떠한 한 개의 개념이라든지 한 개의 사상이 아니고 그 국민의 성격(性格)입니다. 또 진일보해서는 그 국민의 윤리적 생리(生理)입니다. 그 국민의 도덕적 생리입니다. 관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성격이요 생리라는 말입니다. …국민윤리라는 것은 민족의 전통을 떠나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부득이 전통 속에서 우리의 윤리의 표준을 구해야 하겠는데 그 중 풍류도 정신 속에서 조화의 정신을 찾아보고 이것을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김범부, 1978, pp. 217-243).

범부 선생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일념으로 ‘도의정신’과 ‘국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민윤리를 제창하였다(진교훈, 2011, p. 4). 이와 같이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김범부를 중심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자들이 국민윤리교육을 통해 우리 고

유의 공동생활의 원리를 지켜나가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 후 학제적 접근을 통한 국민윤리학에 대한 학적 정립은 대체로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집중적으로 시도되었다. 이 당시 국민윤리는 국민공동생활의 도덕, 규범 내지 기본 가치이며, 사회관계의 기본 질서이자 국가 이념 및 정치 이념의 기초로 간주되었다. 또한 국민윤리학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와 국민 공동생활의 기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적 정립을 시도하였다(한국국민윤리학회, 1986). 하지만 국민윤리학에 대한 연구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윤리학과 전통사상의 연결, 정치 이데올로기 비판과 정치철학의 연결, 나아가서 유교적 정치문화와 서구의 정치문화를 종합하여 '한국적인 윤리학의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발전 및 확충되는 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황경식, 1997, p. 61).

사실상 도덕과교육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한국교과교육학회'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가 창립된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개인 연구 차원에서 1994년부터 서울대학교 정세구교수가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틀을 개발하였고(정세구, 1994), 도덕과교육학 관련 대학 강좌와 교과교육 연구 및 교사교육 실태를 조사 연구한 바 있다(정세구, 1997a, 1997b). 하지만 도덕과교육학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는 전국 규모의 교과교육학회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가 1998년 연차학술대회의 주제로 '도덕·윤리교과교육학의 정립'을 설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도덕교육연구실 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20여 명의 학자가 학적 정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덕·윤리교과교육학 개론』이라는 단행본을 발행하였다. 이 연구물은 도덕과교육학 연구에 초석이 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과교육학이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취약점과 도전 과업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2.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 강화의 배경과 목적

『도덕·윤리교과교육학 개론』이 출간된 지 1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도덕과교육학은 현장 적용과 현장 개선을 위한 현장 지향적 교과교육학에 미시적으로 매달려 온 면이 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수업 현상이 존재하는 한 도덕과교육학은 그런 현장에서의 실천 지향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관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천 현장을 항상 동반하는 '실천학문'의 속성을 지닌 모든 개별 교과교육학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중대한 책무이기도 하고, 그 간 개별 교과교육학이 실제로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공적을 쌓아온 것도 사실이다(박인기,

2006, pp. 266-267).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과교육학을 이러한 현장성의 관점에서만 재단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현장 개선을 위한 ‘대증(對症)처방’, ‘현상추수(現狀追隨)’, ‘기능주의적’ 성격을 지닌 교과교육학은 교과교육학 자체가 교과교육을 토대로 성립되는 학문이라는 차원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단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의 온전한 ‘학문’으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박인기, 2006, p. 267).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과교육학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덕과교육학이 분과 학문으로서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면서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역할 정체성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도덕과교육과 관련된 개별 연구 담론들을 통어(通御)하는 상위의 이론 체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마련하려는 것이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교원임용시험 평가기준 및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연구 담론을 이끌어 갈 상위의 이론 체계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담론을 예로 들면, 아직 도덕발달 및 도덕교육에 대한 이론 체계를 우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콜버그의 인지발달론이 강조되면 우리도 인지발달론을 강조하고, 리코나의 통합적 인격교육론이 강조되면 우리도 통합적 인격교육론의 렌즈로 교과교육을 조망해 온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핀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의 국가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서 독립교과로서 도덕과를 개설해 온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몸매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도덕발달과 도덕교육에 대한 학문의 일반적, 보편적 흐름에 관심을 두면서도 우리의 토양에 맞는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이론적 프레임을 구축하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

셋째, 도덕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도덕과는 인간다운 면모를 갖추는 데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왔던 우리의 도의교육(道義教育)적 전통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이념적·정치적 가치·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국민정신교육(國民精神教育)적 필요성이 결합되어 1973년에 독립교과목으로 개설된 교과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러한 국가·사회적 수요의 확대는 우리 교과의 융성에 추동력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아실현이나 행복실현과 같은 개인적 요구와, 고도의 지식정보 사회, 다문화 사회, 과학기술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등 급속한 사회 환경적 변화 속에서 그 수요를 인정받지 못하는 교과는 교육과정의 전체 지형도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도덕과는 ‘모든 교과를 통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한’ 논리 속에서 그 고유성과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덕과교육학의 학적 재정립은 도덕 교과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교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도덕과의 배경학문 간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응용학문’³⁾으로서의 속성이 강한 도덕과 교육학은 도덕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는 동양·한국 윤리학, 서양·응용 윤리학, 정치학, 북한학·통일학, 심리학·교육학 등의 순수·일반학문 분야에서 내용이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과교육학이 이런 순수·일반학문 분야를 닦고자 한다면 비록 학문으로서의 외형적 혹은 표층적 권위를 갖추게 될지 몰라도 도덕과교육의 본래적인 기능, 즉 인간의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묻고 삶의 실천적 지혜를 배움으로써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는 본질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도덕과에서는 도덕과의 개별 배경학문들이 도덕과교육에 어떤 공헌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multidisciplinary’의 측면), 개별 배경학문들 간 학문적 소통 및 융합을 통해 어떻게 도덕과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지(‘interdisciplinary’의 측면)에 대해 숙의해야 한다.

다섯째, 도덕과교육학의 학문 체계 내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교과교육학은 개별 교과에서의 교과교육학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상위 개념일수도 있지만(이 경우, ‘국어과교육학+도덕과교육학+...=교과교육학’의 관계 성립), 도덕과교육학 내에서 교과내용학과 더불어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도 있다(이 경우, ‘도덕 교과교육학+도덕 교과내용학=도덕과교육학’의 관계 성립). 그렇다면 도덕과교육학의 범주 내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각각의 속성과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덕과교육학의 사고와 논의에 있어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자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덕과교육학계에서는 이러한 물음들 속에 담겨있는 도덕과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각각의 개념과 속성,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성을 규명하기 위해 또한 연구력을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와 세부 연구영역을 재설정하려는 것이다. 이돈희(1994)가 제시한 교과교육학의 구조를 일부 수정하여 정세구교수(1998)가 도덕·윤리교과교육학의

3) 순수학문(pure sciences)과 응용학문(applied sciences)은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무엇을 위해 학문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일정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순수학문은 학문의 내재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학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지식이 대상세계에 관한 보편적 설명이나 이해력을 확장시키고,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서 타당한 것이기를 바란다. 이에 비해 응용학문은 안다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앎의 쓰임새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학자들은 앎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한다(장상호, 1997, p. 623). 도덕과교육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및 인격 함양이라는 특정한 실용적 목적을 위해 학제적 형식을 띠고 순수학문을 응용하는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도덕과교육학을 단지 순수학문의 소비자 혹은 지식 재활용자(knowledge reuser)로 간주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도덕과교육이라는 특수한 실용적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도덕과교육학 내에 특히 교과내용학 영역은 교과교육학 영역에 비해 순수학문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기본적으로 보편적 지식의 교과교육적 변환에 연구의 강조점이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응용학문 지향성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기본적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고, 추병완(2004)은 이러한 정세구교수의 아이디어를 계승 발전시킨 바 있다. 향후 도덕과교육학계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와 세부 연구영역 설정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여섯 가지로 제시한 도덕과교육학 위상 제고의 배경과 목적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적 혹은 기초 연구적 성격을 지니는 본 연구는 특히 첫 번째로 제시된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특히 도덕과교육학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덕과교육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서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과 여섯째로 제시된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 및 연구영역 재설정(여섯째)은 ‘배경학문 간 관계’(넷째)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관계’(다섯째)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시도될 수 없기 때문에, 넷째와 다섯째 측면도 부분적으로 다룰 것이다.

Ⅲ. 도덕과교육학의 개념 및 학문적 정체성 탐색

도덕과교육학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추병완(2004)과 정탁준(2010)을 들 수 있다.

도덕과교육학이란 도덕과교육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각 교과에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교과교육학의 한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도덕과교육학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도덕’이라는 교과의 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룸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도덕과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과 기본 틀을 제공해 주는 학문 영역인 셈이다(추병완, 2004, p. 113).

도덕과교육학은 ‘도덕’과 관련된 보편적 지식과 기능을 도덕교과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분별하고 선정하며 질서화하는 학문을 뜻한다. 즉, 도덕교과의 배경학문에 있는 보편적 지식과 기능을, 특정의 대상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분별하고 선정하고 체계화하면서, 그 작업이 어떤 필요와 가치에 입각한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정탁준, 2010, p. 52).⁴⁾

4) 정탁준은 도덕과교육학에 대한 자신의 개념 규정이 박인기(2006)의 관점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인기는 “교과교육학은 이 세계에 두루 편재해 있는 보편적 지식과 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분별하고 선정하고 질서화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병완의 개념 규정 속에는 도덕과교육학에 대한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가 정형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정탁준의 규정 속에는 보편적 지식 및 기능의 교육적 변형이나 변환의 관점이 도덕과교육학 개념 속에 의미 있게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의 개념 규정 속에는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고, 후자의 개념 규정 속에는 포괄성이 다소 부족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교육학의 개념과 학문적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후속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도덕과교육학은 도덕과교육과 관련된 제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및 인격 함양이라는 실천(교육) 지향적 목적을 위해 동양·한국윤리, 서양윤리, 응용윤리, 정치학, 북한학 및 통일학, 도덕심리학 등 많은 배경학문들 간의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간학문적인(interdisciplinary) 접근에 의한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도덕과교육학을 단순히 윤리학, 정치학, 북한학, 도덕심리학 등으로 환원시키거나 이러한 배경학문들의 단순 결합체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배경학문 간 수렴과 융합을 통해 혹은 배경학문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교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 체계를 형성하여 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학습과 연관되는 원리(原理)·방법'을 도출하려는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한다(정창우, 2012, pp. 8-9).

이러한 도덕과교육학의 개념 및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규정 속에는 도덕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및 인격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천(교육) 지향적' 성격, 다학문적·간학문적 접근에 의한 '종합 학문적' 성격, 그리고 배경학문 간 수렴과 융합을 통해 혹은 배경학문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교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 체계를 형성하여 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학습과 연관되는 원리·방법을 도출하려는 '합목적적' 성격 등이 반영되어 있다.

도덕과교육학의 개념 및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도덕과교육학이 학문적으로 확립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를 진단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도덕과교육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 대상 혹은 현상, 이론 체계, 세계관, 선호하는 연구방법론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Szostak, 2003, p. 29).

첫째, 도덕과교육학의 연구 대상은 도덕과교육과 관련된 제반 현상이며, 그 실체는 도덕과교육의 실천(수업)을 통해 확인된다. 도덕과 수업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과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는 지향점을 갖기 때문에 다른 인문학 및 사회과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교과들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는다. 물론 도덕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역사 및 정치학·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을 배경학문으로 설정하고 있는 교과목들에서도 도덕 문제와 도덕적 가치를 다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은 점점 독자적인 연구 분야와 탐구 방법을 정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덕 문제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탐구는 이들 분야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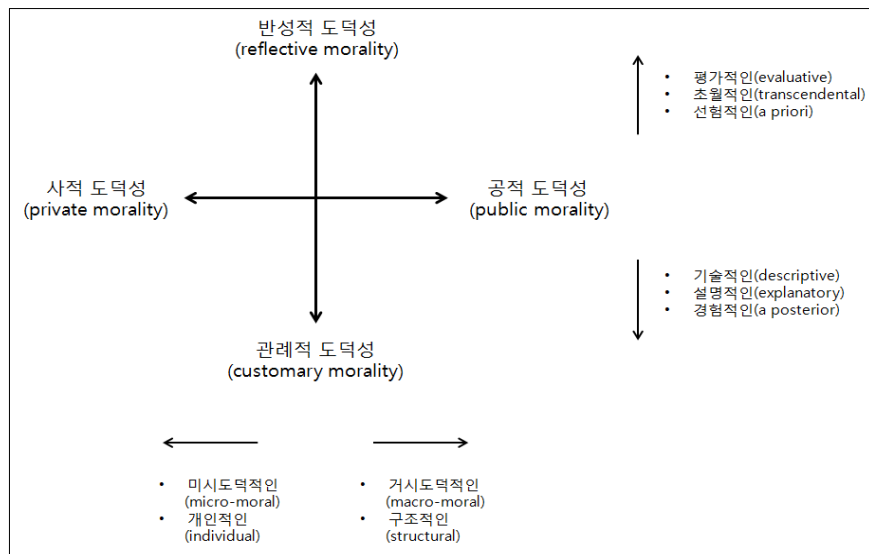
·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교과들에서 도덕 문제와 도덕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취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핀란드, 싱가포르, 우리나라와 같이 도덕 문제와 도덕적 가치 탐구를 다루는 ‘도덕과’를 정규 교과로 설정한 것은 교과의 체계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도덕과교육학에서 선호하는 연구방법론⁵⁾은 도덕과교육의 존재이유이자 목표인 ‘도덕성 발달 및 인격 함양’과 긴밀하게 관련지어 설정해야 한다. 아래 [그림 1]에 제시된 x축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는 윤리의 두 층위와 관련된 도덕성, 즉 사적 도덕성(private morality) 및 공적 도덕성(public morality)을 나타낸다(Hampshire, 1978; 정창우, 2008, p. 5).⁶⁾ 한편, y축은 관례적 도덕성(customary morality)과 반성적 도덕성(reflective morality)을 나타낸다(Thiroux, 2001, p. 17).⁷⁾ 이와 같이 사적 도덕성과 공적 도덕성, 관례적 도덕성과 반성적 도덕성을 두 축으로 볼 때, 인문학(특히 윤리학)과 사회과학(특히 심리학, 정치학 등)의 학문적 상호교류와 활발한 소통이 요구되며,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규범적 혹은 처방적 접근’과 ‘메타윤리적 혹은 분석윤리적 접근’을 포함한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도덕 현상을 기술 또는 설명하는 기술적·경험적(descriptive and empirical) 연구와 인과관계 연구 등을 포함한 ‘사회과학적 접근’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 도덕과교육학계에서는 ‘규범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접근 방식’(제7차 교육과정)을 거쳐 ‘윤리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2007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추구함으로써 연구방법론의 차원에서 일정 정도 개선과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연구방법론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존재이유, 본질, 성격, 목적, 세계관, 핵심 개념 및 원리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대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6) 사적 도덕성이 일상적인 개인 생활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꺼이 행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인격(moral character) 형성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공적 도덕성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의 도덕적 의무를 올바로 판단하고 이를 기꺼이 행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정치적 도덕성(political morality)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7)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존재하는 관례적 도덕성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도덕성의 측면이며, 일반적으로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기초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관례적 도덕성은 유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흔히 비판적인 분석이나 평가 없이 그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지는 특징이 있다. 반면, 철학적·윤리적 탐구를 중시하는 반성적 도덕성은 모든 도덕적 가르침이나 규칙 등의 토대와 근거를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관습, 전통, 규칙, 윤리체계, 윤리 이론 등을 우리가 계속 수용할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 살아가도 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시된다. 관례적 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공통된 도덕 기반의 공고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도덕과교육은 관례적 도덕에 대한 비판 및 성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반성적 도덕성을 지향해야 한다.



[그림 1] 도덕과교육학 연구방법론의 기본 틀

셋째, 도덕과교육학의 이론 체계는 도덕과교육과 관련된 제반 현상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⁸⁾ · 명제 · 법칙 등을 포함한 이론(특히 도덕과교육의 목적 및 목표, 적용, 해석에 관한 개념 · 명제 · 법칙 등을 포함한 이론⁹⁾)의 체계이자, 동시에 이를 통괄하는 상위의 이론적 구조를 의미한다. 도덕과교육의 목적 및 목표, 적용, 해석에 관한 중심 개념 · 명제 · 법칙을 포함한 이론은 시간(전통과 현대)과 공간(서구와 동양 · 한국), 그리고 학문(인문학과 사회과학) 간 경계를 넘나들며 도덕과교육의 의미와 근거를 묻고 실천적 적용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

8) 도덕과교육학이 보다 엄정하게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려면 도덕과교육학만의 독특한 개념들이 존재해야 한다. 즉 도덕과교육학에 내재된 고유한 중심 개념들이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개념들을 관련짓는 관계망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과교육학의 핵심 개념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는 도덕과교육학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응집력이 강한 거점의 기능을 한다.

9) 도덕과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관련된 물음에는 도덕과교육은 왜 필요한가, 도덕적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덕성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도덕과교육에서 이러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인격적 특질(character traits) 혹은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덕과교육의 적용과 관련된 물음으로는 어떤 특정한 교과 내용이 어째서 가르칠 가치가 있는가(즉 그것이 어떤 점에서 교과 내용으로 정당화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과 전략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도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까, 도덕과의 실천(수업)을 위해 어떤 제도적 혹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이 있고,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물음에는 투입된 노력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효과가 있었거나 없었다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요인)은 무엇인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도덕과교육의 목적 및 목표, 적용, 해석 간에는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도덕과교육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단편적인 개별 연구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학계 차원의 체계화 및 조직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야 하며, 동시에 도덕과교육의 실천을 통괄하는 상위의 이론적 구조를 구축하여 도덕과교육의 실재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생성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도덕과교육학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들을 바람직한 어떤 상태로 이끌어가려는 유목적적 활동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도덕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morally educated person)’이 가져야 할 모습과 이런 상태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이고 생성력 있는 이론 체계의 구축은 도덕과교육학계가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가장 강조점을 두면서 연구력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이다.

넷째, 세계관(worldview)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지식을 창출해내는 여과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덕과교육학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론 곧 도덕과가 인간과 삶에 대한 관점(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및 역사와 세상에 대한 관점(국가와 전통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을 확립한 상태이고 이러한 인식 기준에 근거해서 인간과 세상을 해석하고 교과 지식을 창출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도덕과교육의 교육철학적(도덕과교육의 지향과 교육원리는 무엇인가), 도덕철학적(도덕적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간, 사회,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정치·사회철학적(국가와 세계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도덕심리학적(발달인가 사회화인가 등) 관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곧 도덕과교육학의 가치 지향성 및 이념적·교육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앞서 열거한 네 가지 관점 중에 교과의 세계관에서 특히 중요한 측면은 도덕철학 및 정치·사회철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주체적인 시각으로 인간과 사회,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와 개인(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 권리와 의무, 사회화와 발달(혹은 자유화), 덕과 의무, 특수와 보편,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국가안보와 화해협력 등 상호 대립과 모순의 가능성을 상호 보완이나 상호 전화(轉化)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통합적인 안목을 주체적으로 가져야 한다. 물론 여기서의 통합은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나 혼합 방식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보다 강조점을 두면서 다른 부분을 보완적으로 결합시킨다든가, 아니면 두 부분 간의 중합을 통해 새로운 제3의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형태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한국적 맥락에 근거한 보편윤리”, “도덕적 성찰 및 탐구” 등을 추구하고 있으나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도덕과교육학이 학문적으로 확립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도덕과교육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서 그 정체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도덕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교과 정체성에 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론, 그리고 세계관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 교과와의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내릴 수 있지만, 도덕과교육학의 이론 체계는 아직 독자성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IV. 도덕과교육학의 구조 개선과 연구영역 재설정

1.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 개선

이돈희(1994, p. 20)에 의하면 교과교육학은 내용적 명제, 설명적 명제, 교육적 명제를 포함한다. 그가 제시한 기본 틀에 도덕과를 대입해 보면, 우선 ‘내용적 명제’란 도덕과의 ‘내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설명적 명제’란 도덕과에 ‘관한’ 명제이며 도덕(과)교육의 역사, 도덕성 발달의 사회·문화적 배경, 도덕적 사고의 성장 등을 포괄한다. 이 부분은 도덕과를 왜 가르쳐야 하며, 어떤 내용을 교육적 목적으로 선정할 것이며,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교육적 명제’란 도덕과를 가르치는 행위에 논리적으로 직결된 것이며, 도덕과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명제이다.

한편, 정세구교수(1998)는 도덕과교육학의 구조를 ① 기초이론별 접근법(교과의 배경적 기초를 연구하는 분야), ② 관련 학문 분야별 접근법(교과의 내용체계를 그 기본이 되는 학문 분야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분야), ③ 교육과정 요소별 접근법(도덕과교육의 지도원리를 그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 요소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분야), ④ 연구 방법론(도덕과교육에서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으로 구분한 바 있고(정세구, 1998), 추병완은 ㉠ 기초연구영역, ㉡ 내용연구영역, ㉢ 실제연구영역, ㉣ (연구방법과 관련된) 방법연구영역, ㉤ 정책연구영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추병완, 2004). 정세구교수가 제시한 구조는 이돈희(1994)의 아이디어를 도덕과의 특성에 맞게 정교하게 가공한 장점이 있고, 추병완의 구조는 정세구교수의 아이디어를 계승 발전시킨 장점이 있다. 추병완이 사용한 ㉠~㉤ 개념은 크게 볼 때 ㉠~㉣를 기본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은 새롭게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기본 구조 내에서 다루어지는 세부 항목 수준에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

아래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를 추병완의 아이디어와 상호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추병완교수가 이돈희와 정세구교수의 아이디어를 계승·발전시킨 개념인 ‘기초연구영역’과 ‘실제연구영역’의 경우 후자의 명칭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특징들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정창우, 2012, p. 14). 하지만 ‘내용연구영역’은 교과의 성격, 지도원리 및 방법 등과 엄격하게 분리해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배경학문 연구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경학문의 역할과 기능이 비록 교과의 내용 영역과 직결되어 있긴 하지만, 교과의 지식체계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성격 및 방법, 특히 방법과의 상호 연결성(connectivity)을 고려해야 하고,¹⁰⁾

10) 도덕과교육학에서 배경학문의 역할은 내용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내용과 방법 중 택일적 관점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즉 배경학문의 역할에서 ‘내용’을 보다 중시하느냐 아니면 ‘방법’을 보다 중

이를 위해서는 배경학문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교과 내용 영역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배경학문 연구영역은 접근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개별 배경학문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도덕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과 배경학문들 간의 융합과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도덕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돈희(1994)	정세구(1998)	추병완(2004)	정창우(2012)
설명적 명제 →	기초이론별 접근법 →	기초연구영역 →	기초연구영역
내용적 명제 →	관련 학문 분야별 접근법 →	내용연구영역 ↗ ↘	배경학문연구영역(I): 다학문적 접근 배경학문연구영역(II): 간학문적 접근
교육적 명제 →	교육과정 요소별 접근법 →	실제연구영역 →	실천연구영역
	연구 방법론 →	방법연구영역 ↘ 정책연구영역 →	제도·지원연구영역 (연구방법론 포함)

[그림 2]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에 대한 학자 간 비교

도덕과교육학계에 속한 학자가 지닌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및 인격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vehicle)이 된다.¹¹⁾ 동·서양윤리학, 정치철학, 통일학 등을 전공한 학자들의 책무는 개별 배경학문들이 제공하는 핵심 개념 및 이론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형성시켜주고 실천지향

시하느냐와 같이 상대적인 강조점을 어느 쪽에 더 두느냐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내용에 보다 비중을 두는 배경학문으로는 윤리학, 정치이론 및 정치철학, 북한학 및 통일학, 미학 등을 들 수 있고, 방법에 보다 비중을 두는 배경학문으로는 도덕심리학과 교육학(교육심리학, 교수·학습방법론, 교육평가론 등) 등을 들 수 있다.

- 11) 이를 위해 도덕과교육학계에 속한 학자들은 개별 학문을 통해서 도덕과교육을 조망하고 규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덕과교육을 위해 개별 배경학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기초·일반 학문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학과 철학(윤리학)과 같은 교과 배경학문을 그 자체로 자기 결정성을 갖춘, 즉 학적으로 정립된 상태로 간주하면서 단순히 이러한 학문 지식을 도덕과 교육의 맥락에 응용 혹은 적용한다는 발상을 가지는 것은 도덕과교육학의 개선을 위해 결코 적절하지 않는 연구 자세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 관점 및 태도는 ‘교과교육학’보다는 소위 철학과 정치학 등 교과내용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간혹 발견된다. 도덕과교육을 기초·일반학문의 단순한 응용 차원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입장은 기초 학문의 지적 우월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인 가치·태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덕과교육학계 내에서 정치학 전공자들의 책무는 학생들이 사회정의, 인권, 자유, 평등 등 정치철학 영역에서의 핵심 개념들과 관련 이론들을 활용하면서 정치공동체의 도덕성에 대해 해석과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인권 존중 및 이상적인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태도를 형성시켜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 배경학문의 의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곧 도덕과교육학 연구를 개별 배경학문별로 배타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간학문적 접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도덕과교육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도덕과교육학을 윤리학, 정치철학, 도덕심리학, 통일학 등 배경학문들의 단순 합으로 보아 다학문적인 성격으로 이해한 경향이 있어 왔다. 물론 각 분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도덕과교육학의 바탕이 되는 배경학문들이 도덕과교육으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질적 변화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각 학문의 고유 성격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일종의 혼합물 상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각 배경학문 간의 단순 혼합이거나 학문적 상호교류의 정도가 경미한 다학문적 수준에 머무른다면,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과교육학의 배경학문 영역은 다학문적 접근과 간학문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탐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배경학문에 대한 탐구는 도덕과교육의 목적과 본질로서의 '도덕성 발달'이라는 상위 개념과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추병완이 제시한 '방법론적 연구영역'과 '정책연구영역'은 '제도·지원 연구영역'으로 통합될 수 있다. 제도·지원 연구영역은 도덕과교육의 실천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 분야이고, 동시에 도덕과교육의 이론과 실천(개발·적용·해석 등)에 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2. 도덕과교육학 연구영역의 상세화

이상에서 밝힌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를 토대로 연구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교육학의 연구영역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구영역	
- 도덕과 역사론	
- 도덕과 정당화론	
- 도덕과 사회·문화적 배경론	
- 도덕과 개념분석론	
- 도덕교육론	
- 도덕교육 형태론	
- 도덕과 비교론	

□ 배경학문 연구영역(Ⅰ):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에 따른 연구영역

- 도덕과의 동양·한국윤리학적 접근
- 도덕과의 서양윤리학적 접근
- 도덕과의 응용윤리학적 접근
- 도덕과의 정치·사회학적 접근
- 도덕과의 북한학·통일학적 접근
- 도덕과의 문학적 접근
- 도덕과의 심리학적 접근

□ 배경학문 연구영역(Ⅱ):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에 따른 연구영역

- └ 배경학문의 참여 범위에 따른 간학문적 접근
- └ 주제 영역(thematic areas)별 간학문적 접근

□ 실천연구영역

- 도덕과 목표론
- 도덕과 내용론
- 도덕과 교수·학습방법론
- 도덕과 평가론
- 도덕과 교수·학습자료론

□ 제도·지원 연구영역

- 도덕과 교사론
- 도덕과 교과서제도론
- 도덕과교육 연구방법론
- 도덕과 교육과정 정책론

첫째로, 도덕과교육학의 연구영역 중 도덕과에 ‘관한’ 설명적 명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기초연구영역’을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덕과 역사론』은 도덕 교과역의 역사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도덕과의 개설 및 변천 과정(특히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서강식, 2005; 이명준, 2008), 도덕 교과역의 역사 및 교과 연구에 관한 학술적 성과를 종합하고 평가하며(강두호, 2009; 조일수, 2008), 과거를 거울삼아 향후 도덕과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도덕과 정당화론』은 도덕과가 독립교과로서 설정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 도덕성은 굳이 그 담당 주체가 도덕 교과가 아니어도 된다는 회의적 시각에 늘 도전받아 왔다. 따라서 도덕과교육학계는 이른바 교수학적 변환을 거친 학교 도덕교육의 방식이 교육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용하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교과 설정의 근거’는 외재적 정당화와 내재적 정당화(이홍우, 2010),

학문체계에서 도덕 영역의 독자성(정탁준, 2010), 교과 통합적 기능과 가치 통합적 기능(박병기, 추병완, 2007), 도구적 정당화와 본질적 정당화(정창우, 2011; 황인표, 2005), 반도덕과 교육론에 대한 대응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강민석, 1999)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도덕과 사회·문화적 배경론』은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 변동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한국인의 도덕적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탐색하려는 것이다. 최근 문화적 다양성의 증대와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요구되는 도덕성, 예컨대 다문화적 도덕성(윤영돈, 2010; 이정렬, 2010; 정탁준, 2007; 추병완, 2008)이나 글로벌 시민성 등에 대한 연구(정창우, 2010)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덕과 개념분석론』은 도덕과교육학을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 특징짓는 핵심 개념들을 추출하고, 도덕과교육과 관련된 개념의 논리적 분석 혹은 명료화 작업을 통해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최근 도덕과교육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술 개념들 중에는 도덕심리학 및 도덕교육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학, 철학 및 윤리학, 정치철학 영역 등에서 차용된 개념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개념들의 사용 과정에서 흔히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념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도덕과교육학의 학적 정립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개념들을 교과의 맥락 속에 정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념의 명료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¹²⁾

『도덕교육론』은 도덕교육에 관한 이론 및 사상 탐구를 통해 도덕과교육의 실천을 위한 도덕철학 및 도덕심리학적 기초를 정립하려는 것이고, 나아가서 도덕과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동·서양 도덕교육 이론 및 사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실행되어 왔지만(김태훈, 2008; 박병기, 추병완, 2007; 박재주, 2000, 2003; 유병열, 2006; 이영문, 2011; 정창우, 2009a; 추병완, 2004), 앞으로는 도덕과교육의 실천(수업)을 통어할 수 있는 상위의 이론 체계를 개발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도덕교육 형태론』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한 인간의 도덕성 혹은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해 각각 어떻게 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그 특징은 어떻게 다르며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박찬석, 2003; 최용성, 2003).

『도덕과 비교론』은 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그리고 외국 도덕교육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는 분야이다. 모든 교과 활동들과(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과 외 활동은 전인적인 발달 및

12)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교수목표로 분류하는 지식, 기능(skills), 가치·태도가 아니라,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은 무엇인지,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론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들, 이를 테면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감정,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인격교육과 인성교육, 도덕적 자율성과 자율적 도덕성 등의 개념들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등이 도덕과 개념분석론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생활 적응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과 인격 함양을 추구하는 도덕과와 일정 정도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관련 연구로는 김항인, 2011). 또한 세계의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구성원의 자기 성장과 그 공동체의 영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형태는 다양하다(관련 연구로는 구니이유타카, 2012; 박장호, 2011;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b). 그러므로 타 교과 및 교과 외 활동과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 도덕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론화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배경학문 연구영역’은 도덕과를 성립시키는 배경학문들을 통해 기본적으로 교과의 ‘내용적 명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영역이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교과 내용’과 ‘목표’ 및 ‘방법’ 간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면서 배경학문들이 교과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이다. 이 중 개별 배경학문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도덕과교육의 공헌을 시도하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연구영역’을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양·한국 윤리학적 접근』은 유·불·도를 중심으로 한 ‘동양윤리사상’과 이러한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정 정도 독자성을 지닌 ‘한국윤리사상’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고찰하고, 이러한 윤리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 사회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 철학적 성찰 및 탐구와, 인격 함양을 위해 도덕 실천 및 수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교육의 방법론적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 분야이다. 지금까지 도덕과교육학계에서는 주로 유교적 원리에 바탕을 둔 도덕교육을 연구해 왔으며(강봉수, 2008; 서은숙, 2007; 장승희, 2006), 박병기(2009)와 고대만(2011) 등이 불교 도덕교육론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양 윤리학적 접근』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개되어 온 서양 윤리학에 근거하여 도덕과교육의 성격 및 목표, 내용, 방법을 밝히려는 것이다. 즉 서양 윤리학적 접근은 서양 윤리사상(고대, 중세, 근대, 현대윤리사상) 및 윤리이론(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답론윤리, 계약윤리, 책임윤리, 배려윤리 등)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의 지향점과 정당화 근거를 밝히고, 이를 통해 도덕과교육의 성격과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지도 방법 설계 등을 위한 시사점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학계에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노영란, 2005; 박병기, 추병완, 2007; 박찬구, 2005; 변순용, 2010).

『응용 윤리학적 접근』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덕 문제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 동양·한국윤리학, 서양윤리학, 정치철학, 도덕심리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다차원(multiple)·간학문적(interdisciplinary)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덕과교육학계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윤리적 이슈 및 토픽을 중심으로 응용윤리학적 논의를 전개하거나(류지한, 2004; 허남결, 2011; 홍석영, 2005), 교과교육적 맥락에서 이러한 윤리적 이슈 및 토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김남준, 2009; 추병완, 2005), 도덕과에서 이러한 응용윤리학적 접근의 학문적 토

대는 주로 서구윤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치·사회학적 접근」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 도덕적 인간상(혹은 도덕성)과 정치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명하고 도덕적 시민성을 지닌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정치·사회학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도덕 문제를 주로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 행복과 복지,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규범' 차원에서 이해하며(정치학적 관점), 대부분의 사회는 그 사회에 맞는 도덕규범을 발전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그 규범들이 때로 개인의 행동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사회학적 관점). 이와 같이 정치·사회학적 접근은 어떤 제도와 도덕규범이 형성된 '상황적인 맥락'과 '풍토'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술적(descriptive) 진술'을 일부 필요로 하지만, 교과 특성상 시민의 삶에 관련된 규범적·윤리적 관점의 정치철학에 강조점을 둔다.¹³⁾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김상돈(2009), 박효중(2005), 손동현(2005), 정창우(2008), 조일수(2009) 등의 연구가 있다.

「북한학·통일학적 접근」은 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을 왜 다루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구명하기 위하여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연구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해 새롭게 개척된 종합학문인 '북한학' 및 '통일학'을 중심으로 윤리학 및 정치철학, 한국학, 평화학, 사회학, 도덕심리학 등에서의 연구 성과를 학제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국가·사회적 요구' 및 '통일 환경의 변화'의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의 명칭은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통일준비교육, 통일대비교육 등으로 변천해 왔으며, 도덕과교육학계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통일교육 방식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면서 최근 도덕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박찬석, 2008; 윤건영, 2007; 이범웅, 2011; 추병완, 2009; 황인표, 2009a, 2009b).

「문학적 접근」은 도덕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사람됨의 형성을 위해 유익한 문학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실제 도덕과 수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가치와 세계관의 문제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는 면에서 보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도덕(과)교육과 서로 만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립 시드니에 따르면, 문학은 단순한 현실의 모방이 아니라, 시인과 작가가 무질서한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도덕적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한 보다 심원한 미학적인 세계이다(이태동, 2005, p. 321 재인용). 따라서 문학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타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학작

13) 도덕과에서 다루는 정치철학적 내용에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개인과 국가의 올바른 관계, 평등과 자유, 법과 정의 등의 본질과 필요성,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 정치와 윤리와의 관계, 전쟁과 평화, 인권이란 무엇인가 등이 포함된다.

품에 나타난 인간 존재의 성격과 관계, 인간의 욕망과 감정, 도덕적 갈등상황과 딜레마 등을 통해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숙고와 판단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도홍찬, 2011; 박진환, 류혜숙, 2007).

『도덕심리학적 접근』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도덕심리학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의 도덕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 심리학영역은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도덕과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했고(남궁달화, 2009; 박병춘, 1999),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위계적 성격(혹은 발달의 계열성)을 갖는 도덕과 교육목표(예컨대, 학교급별 목표 등) 설정에 도움을 주었으며(정창우, 2009a), 도덕적 추론, 모델링, 내러티브, 친사회적 행동, 도덕적 규율, 도덕적 갈등해결, 역할채택 등 도덕교육의 실천적 방법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데 기여해 왔다(김태훈, 2008; 유병열, 2009).

셋째,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은 ‘다학문적 접근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 배경학문 간의 협업과 융합을 통해 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학습과 연관되는 원리(原理)·방법’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간학문적 접근은 여러 학문 간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가지기 어려웠던 다각적인 안목과 설명력을 확보하는 힘을 지닌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배경학문들 간의 학제적 접근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도덕과교육학 연구를 보다 풍부하고 정교하게 이끌며, 동시에 그러한 학문 간 상호교류 및 융합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 통찰들이 개별 배경학문들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간학문적 접근은 다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배경학문들의 참여 범위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특정 주제 영역(thematic area)을 중심으로 학문 간 결합이 어떤 형태로 가능한가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와 같이, 배경학문 간 참여 범위를 중시하는 간학문적 접근에는 다시 도덕과 배경학문 중 2개 학문 간 소통방식(예: 정치학+윤리학 등)이 성립될 수 있고, 또한 3개 이상 학문 간 소통방식(예: 정치학+통일학+도덕심리학 등)도 성립 가능하다. 한편, 주제 영역(thematic areas)별 간학문적 접근 방식에는 통일교육 영역(예: 통일학+윤리학+도덕심리학), 인권교육 영역(예: 윤리학+정치(철)학+도덕심리학), 다문화교육 및 글로벌교육 영역(예: 윤리학+정치(철)학+도덕심리학), 과학기술윤리교육 영역(생명·정보·환경) 영역(예: 윤리학+도덕심리학), 그리고 문화윤리교육 영역(예: 윤리학+문학)의 간학문적 접근이 시도될 수 있다.

넷째, ‘실천연구영역’은 도덕과교육학의 연구영역 중 도덕 교과를 가르치는 행위와 논리적으로 직결된 ‘교육적 명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영역이고, 이러한 실천연구영역은 앞서 언급한 기초연구영역과 배경학문 연구영역의 토대 위에 정립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두 영역은 실천연구영역을 향해 상호 수렴 및 결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실천연구영역을 보다 구체화하

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 목표론」은 도덕 교과를 왜 가르치는가, 교과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바가 무엇인가 등 ‘도덕과의 본질적 성격’과 ‘도덕과를 배우고 난 후에 획득되어야 할 도덕적 인간상 혹은 도덕적 능력 및 성향’, 그리고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학교급별·학년군별·학년별 등) 목표’ 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강두호, 2009; 김은수, 2007; 신현우, 2007).

「도덕과 내용론」은 도덕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의 성격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도덕과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도 내용을 선정(selection) 및 조직(organization)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정과 조직을 위한 범위(scope)와 계열성(sequence)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이경원, 홍성민, 2007; 장승희, 2011; 정창우, 2009b).

「도덕과 교수·학습방법론」은 도덕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혹은 새롭게 개발된 교수·학습모형이나 방법 등을 소개하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한 지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유병열, 2011; 정창우 외, 2009; 추병완, 2000). 향후 연구 과제의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용지식과 내용의 수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교수·학습방법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도덕과 평가론」에서는 도덕과 평가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연구한다(김태훈, 2002; 이재호, 2009; 서강식, 2002; 정창우 외, 2007). 도덕과 평가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평가계획 수립, 평가목표와 내용 설정, 평가방법 선정 및 실시, 평가결과의 분석·해석 등 도덕과 평가의 일반적인 지침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도덕과 학업성취도 결과와 실제 도덕성 수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도덕과 평가가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교과의 목표,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하여 평가 준거와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교수·학습자료론」은 도덕과 수업목표의 달성에 유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추병완, 박병기, 이경원, 변종현, 2005). 여기서도 교과의 목표,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하여 교수·학습자료의 유형을 다양하게 안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도·지원 연구영역’은 도덕과교육의 실천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분야이고, 동시에 도덕과교육의 이론과 실제(프로그램 개발·적용·해석 등)에 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영역에는 「도덕과 교사론」, 「도덕과 교과서제도론」, 「도덕과 교육과정 정책론」 등이 포함되고, 연구 지원 영역

에는 「도덕과교육 연구방법론」이 포함된다.

「도덕과 교사론」은 도덕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과 교사의 양성 및 선발, 그리고 재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등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여기에는 도덕과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사 자격기준(teacher certification) 및 임용시험 평가영역·평가내용요소의 개발·적용, 현직교사 대상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등이 포함된다(김국현, 2011; 정창우, 2006; 하정혜, 2007).

「도덕과 교과서제도론」은 도덕과 교과서의 개발, 평가, 사용 등을 제어하는 제도나 지침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정책 혹은 제도의 한 양상으로서 ‘도덕과 교과서제도’라는 것이 실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도덕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연계해서 도덕과 교과서가 지녀야 하는 특성이 무엇이고 이러한 특성이 실제로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며, 도덕과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도덕과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이인재, 2006; 이진희, 2007; 차우규, 2006).

「도덕과 교육과정 정책론」은 초·중등 도덕과의 과목편제¹⁴⁾ 및 이수 단위 문제, 교육과정 운영 방식 문제,¹⁵⁾ 도덕과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및 연계성 문제,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 대상 및 범위 설정 문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문제¹⁶⁾ 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정책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윤현진, 2005).

「도덕과교육 연구방법론」은 추상적인 학습자를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이론 연구 혹은 문헌 연구와는 달리, 양적·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론의 타당성 및 정합성을 검증하거나 도덕과교육의 연구 성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제껏 도덕과교육학계에서는 이론 연구, 문헌 연구 등에 치중한 나머지, 도덕과교육의 연구방법론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향후 도덕과 교사들의 실행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규명하며,¹⁷⁾ 도덕과교육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14) 현재 바른생활,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예를 들어, 집중이수제, 블록타임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16) 예를 들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혹은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교과부에서는 모든 교과에 창의·인성교육 강화, 녹색성장교육 및 국가정체성 교육 내용이 반영될 것을 요구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도덕과의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윤리교육,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양성평등교육 내용을 충실히 담아 줄 것을 주문하였음). 이와 같은 국가·사회적 요구에 대해 도덕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과차원에서 숙의해야 한다.

17)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과 관계되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하다.

V. 결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교과교육학이 하나의 독립 학문으로 충분히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덕과교육학’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¹⁸⁾ 무엇보다도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및 학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었고, 이로 인해 내·외부 학자들로부터 학문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교과편제에서 도덕과를 하나의 독립교과로 개설한 지 40여 년, 국내 대학에서 도덕과를 담당할 전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국민)윤리교육과를 설치한 지 30여 년, 그리고 도덕과교육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을 새로운 반성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도덕과교육학계가 교과로서 존속하고 변형할 수 있는 존재양식을 개발하여 자신의 존재지평을 조금씩 발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없다면, 도덕 교과와 앞날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 제고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도덕과교육학의 개념과 학문적 정체성을 탐구하였으며, 독자적인 연구 대상, 이론 체계, 세계관, 연구방법론 등 도덕과교육학이 학문적으로 확립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학문적 독립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덕과교육학의 기본 구조와 연구영역을 재설정하여 학문적 위상 제고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의 특성상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도덕과교육 학문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도덕과교육학이라는 큰 우산 내에 다양한 배경학문 전공자들 간의 대화 가능성을 더욱 넓혀나가야 하고, 타 학문의 외피(外皮)만을 추수(追隨)하는 의양지학(依樣之學)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괄하는 상위의 이론 체계를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자득지학(自得之學)의 자세가 요구된다.¹⁹⁾ 이와 같이 도덕과교육학계 내에서의 협업과 새로운 도덕과교육학 이론 창출을 위한 신념과 열정은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자생력을 추동하는 힘(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18) 예컨대, 신생학문은 항상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자료를 축적하는 데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19) 자율적인 학문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학자가 추구해야 할 이러한 태도는 글루크스만(M. Glucksman, 1974, p. 155)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어떤 학문이건 간에 스스로 자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연구 영역이 정의되고 그것 자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 개념들은 은유의 수단으로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기존의 학문으로부터 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은 이론가들의 편에서 연구의 각 단계마다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자의식을 유지할 것이 요청됨을 의미한다.”(장상호, 1997, p. 537)

참 고 문 헌

- 강두호(2009). **도덕교육의 교과교육학적 탐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 강민석(1999). 도덕과 교육의 정당화 문제. **도덕윤리과교육**, 10.
- 강봉수(2008). **한국유교도덕교육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 고대만(2011). 십이연기와 도덕교육. **도덕과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탐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구니이유타카(2012). 한국과 일본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인간상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국현(2011). 도덕과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 개선방안. **윤리연구**, 81.
- 김남준(2009). 도덕과교육에서 환경윤리교육. **도덕윤리과교육**, 29.
- 김범부(1978). 국민윤리특강. **국민윤리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 김범부(1986). **범부유교**. 범부유교간행위원회.
- 김상돈(2009). 도덕과교육에서 도덕적 시민교육의 학문적 근거와 내용체계. **도덕윤리과교육**, 28.
- 김은수(2007). 초등 도덕과 교육목표 설정자원 연구. **초등도덕교육**, 25.
- 김태훈(2002). 초등 도덕과 참 평가의 원리와 쟁점. **초등도덕교육**, 9.
- 김태훈(2008). **도덕성발달이론과 교육**. 경기: 인간사랑.
- 김향인(2011). 학교 도덕교육의 역할과 통합 탐색: 도덕과, 일반교과, 교과 외 활동의 관계. **초·중등 도덕과교육의 위기와 해법**. 2011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 남궁달화(2009). 도덕교육에서 통합적 접근방법과 통합논리에 대한 탐색. **교원교육**, 25(3).
- 노영란(2005). 도덕·윤리과교육의 덕윤리적 접근. **도덕·윤리과교육의 학제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도홍찬(2011). **이야기 문학 도덕교육**. 경기: 인간사랑.
- 류지한(2004).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 성윤리. **윤리연구**, 57.
- 박병기(2009). **동양 도덕교육론의 현대적 해석**. 경기: 인간사랑.
- 박병기, 주병완(2007). **윤리학과 도덕교육1(개정증보판)**. 경기: 인간사랑.
- 박병춘(1999). 초등 도덕과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통합적 도덕성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10.
- 박인기(2006). 교과교육학의 학문 위상과 현 단계 도전 과업. **교과교육학연구**, 10(1).
- 박창호(2011). PISA(2009)에 나타난 도덕교육 현황과 의미. **도덕윤리과교육**, 34.
- 박재주(2000). **동양의 도덕교육사상**. 서울: 청계.
- 박재주(2003). **서양의 도덕교육사상**. 서울: 청계.
- 박진환, 류혜숙(2007). 도덕과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반편견·다문화교육. **윤리교육연구**, 20.

- 박찬구(2005). 도덕·윤리과교육의 의무론적 접근. **도덕·윤리과교육의 학제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박찬석(2003). 가족에서의 청소년 역할강화를 위한 도덕교육. **윤리연구**, 43.
- 박찬석(2008). 도덕과교육의 내용과 통일학·북한학의 접목. **도덕윤리과교육**, 26.
- 박효종(2005). 도덕·윤리과교육의 정치·경제의식적 접근. **도덕·윤리과교육의 학제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변순용(2010). 윤리학의 관점에서 도덕과 교과지식의 현황과 발전 방안. **윤리교육연구**, 22.
- 서강식(2002). **도덕과 평가**. 서울: 양서원.
- 서강식(2005). 초·중·고 도덕·윤리 교과교육 연구 활동의 변천. **도덕윤리과교육**, 20.
- 서은숙(2007). **동양윤리교육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 손동현(2005). 도덕과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재론: 국가·민족생활의 도덕에 주목하여. **동서철학연구**, 38.
- 신현우(2007). 도덕과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실천적 지혜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25.
- 유병열(2006). **도덕교육론**. 서울: 양서원.
- 유병열(2009). 초등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연구**, 29.
- 유병열(2011). **도덕과 교육론(개정 증보판)**. 서울: 양서원.
- 윤건영(2007). 도덕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초등도덕교육**, 23.
- 윤영돈(2010).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경기: 이담북스.
- 윤현진(2005).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윤리연구**, 59.
- 이경원, 홍성민(2007).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의 적정화 연구. **초등도덕교육**, 23.
- 이돈희(1994). 교과교육학의 성격과 과제. **교과교육학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명준(2008). 개화기 전후의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사적 고찰. **교육철학**, 43.
- 이범웅(2011). 북한·통일학 분야에서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지식의 현황과 발전 방안. **윤리연구**, 80.
- 이영문(2011). **도덕교육의 이론과 수업**.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이인재(2006). 차기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평가와 교과서 개발 방향. **윤리연구**, 62.
- 이재호(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등학교 도덕과 평가 방안 모색. **초등도덕교육**, 30.
- 이정렬(2010). 도덕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 **다문화사회, 글로벌시대 초·중등 도덕과교육의 과제와 지향**.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이진희(2007). 김정 교과서 체제에서의 도덕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66.
- 이태동(2005). 서평: '문학의 숲'으로 가는 길에서. **문학의 숲을 거닐다**. 서울: 샘터.
- 이흥우(2010). **중보 교육과정탐구**. 서울: 박영사.
-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승희(2006). **전통윤리교육론**. 경인문화사.
- 장승희(2011). 도덕과 내용체계에서 제4영역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분석. **윤리연구**, 80.
- 정세구(1994). **도덕·윤리 교과교육학의 성격과 구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정세구(1997a). 도덕·윤리 교과교육학 관련 강좌 구성안. **교과교육학 강좌 편성과 명세**. 한국 교과교육학회.
- 정세구(1997b). 도덕과 교육의 개선 방향, 교과교육연구 및 교과담당 교사교육 실태. **교과교육 연구와 실제의 의사소통 매체**. 한국교과교육학회.
- 정세구(1998). 도덕·윤리교과교육학 정립을 위한 접근법. **도덕·윤리교과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창우 외(2007). **도덕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경기: 인간사랑.
- 정창우(2006). 도덕·윤리과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변천과 발전과제. **윤리연구**, 63.
- 정창우(2008). 도덕과교육에서 시민교육 영역의 교육내용과 지도 방법. **도덕윤리과교육**, 26.
- 정창우(2009a).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경기: 교육과학사.
- 정창우(2009b). 도덕과 내용 구성 원리의 쟁점과 개선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29.
- 정창우(2010). 초·중등 도덕과에서 글로벌 윤리교육의 과제와 지향. **윤리연구**, 79.
- 정창우(2011). 도덕과의 정당성 및 정체성 연구. **윤리연구**, 82.
- 정창우(2012).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 정립 방안.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정립과 새로운 지평 탐색**. 2012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제84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
- 정탁준(2007). 다문화교육의 도덕과 교과교육적 적용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0(1).
- 정탁준(2010). 도덕과 교과교육학 정립을 위한 일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24.
- 조난심(2011). 초등 도덕과 교육내용 적절성에 대한 재음미. **도덕과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탐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조일수(2008). 한국 사회에서의 윤리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전망. **윤리연구**, 60.
- 조일수(2009). 윤리와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18.
- 진교훈(2011). **김범부의 풍류정신과 국민윤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창립30주년 행사 기념 강연 자료.
- 차우규(2006). 초등 도덕과 교과서의 개발 방향. **초등교과교육연구**, 7.
- 최용성(2003). 도덕교육에 있어서 배려의 공동체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17.
- 추병완(2000). **열린 도덕과 교육론**. 서울: 하우.
- 추병완(2004). **도덕교육의 이해(개정판)**. 서울: 백의.
- 추병완(2005). **정보윤리교육론(개정판)**. 서울: 울력.
- 추병완(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도덕 교사의 역할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1(2).
- 추병완(2009).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과교육**, 29.

- 추병완, 박병기, 이경원, 변종현(2005). **윤리학과 도덕교육2**. 경기: 인간사랑.
- 하정혜(2007). 도덕·윤리교사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 **윤리연구**, 67.
- 한국국민윤리학회(1986). **국민윤리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1998a). **도덕·윤리교과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1998b). **세계의 도덕·윤리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허남결(2011). 동물의 권리문제와 불교의 생명윤리. **윤리연구**, 81.
- 홍석영(2005).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윤리연구**, 60.
- 황경식(1997).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현황Ⅱ(80-현재). **철학사상**, 특집호.
- 황인표(2005). **통일교육론 체계화와 도덕과교육 적용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황인표(2009a). 글로벌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도덕윤리과교육**, 29.
- 황인표(2009b). 평화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28.

- Glucksman, M. (1974). *Structuralist analysis in contemporary social thought: A comparison of the theories of Claude Levi-Strauss and Louis Althuss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ampshire, S. (1978). *Public and private moralit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zostak, R. (2003). "Comprehensive" curriculum reform: Providing students with a map of the scholarly enterprise.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52(1), 27-49.
- Thiroux, J. (2001). *Ethics: Theory and practice*. NJ: Prentice-Hall, Inc.

· 논문접수: 2012-05-01/ 수정본 접수: 2012-06-15/ 게재승인: 2012-06-18

ABSTRACT

Academic Identity and Research Directions of Moral Subject Matter Education

Chang-Woo Jeong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that moral subject matter education can be more fully appreciated as an academically independent scienc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describes reasons why we should make extraordinary efforts to establish academic status of moral subject matter education at current stage, explores the concept and academic identity of moral subject matter education, and presents some specific ideas for getting academic identity as an independent scientific discipline in terms of a set of phenomena to be studied, a set of theories, a set of preferred methods, and a worldview.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a basic structure and scope of research areas covered in the field of moral subject matter education. Recognizing the fact that sustained efforts and enthusiasm of academic community sharing critical minds, research motives or interests, and main concepts and research methods are undoubtedly needed in order for a new branch of academic areas to be highly appreciated as an academically independent science, this article fully accesses and uses previous research produced by the entire academic community interested in moral education research especially from the late 1990's.

Key Words : moral subject matter education, moral education, national ethics, academic identity, academic standing

